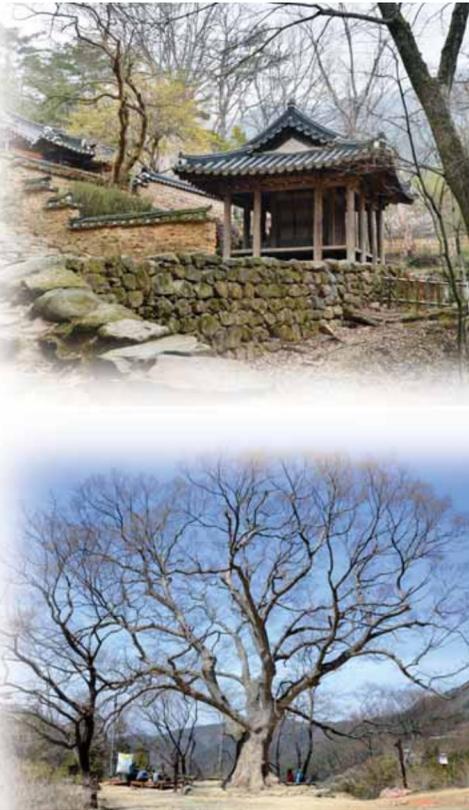


지질명소	비지질명소
무등산 정상 3봉 (천왕봉/지왕봉/인왕봉)	제철유적지
서석대	무진고성
입석대	천제단
광석대	봉황대 약수터
신선대와 역새평전	증심사
덕산너덜	원효사
지공너덜	충장사
무등산 종횡	의재미술관
백마능선	춘설헌
장불재	편백나무군락지
시무지기폭포	제1수원지
운필봉 자연동굴	무등산 당산나무
충효동 점토광물산지	광주호수생태원
의상봉	약사사
새인봉	풍암정
증심사계곡	환벽당
인산암절영암	국립 5.18민주묘지
무등산 광주화강암	충민사
만연사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경열사
적벽	충효동 왕버들
서유리 공룡화석지	가사문화유적권 (소쇄원, 독수정원림, 면암정, 송강정, 식영정, 명옥헌원림)
백아산 석회동굴	물영정
운주사 충상옹회암	
화순 고인돌 정동옹회암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규봉암 광석대, 소쇄원, 무등산 당산나무, 적벽.



광주시의회 예산심사 잠정 보류 도시철도 2호선 조속 결단 압박

“건설 여부 결정후 재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사 일정(12월1~5일)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정 현안을 놓고 예산안 심사 보류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산결산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유장현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할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호선 건설 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 만큼 윤 시장의 결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선 6기 출범 이후 윤 시장의 재

검토 지시로 지역사회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결단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읽힌다. 반 위원장은 “예결위원 9명 전원이 간담회를 했다. 2호선 건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심사 보류 내용을 각 상임위에 통보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따라 시설계획비 55억원의 편성 여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도시철도 관련없는 시 교육청 예산 심사는 애초 4일에서 앞당겨 2일에 하기로 했다. 반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결위의 본래 기능을 살려 꼼꼼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학술·경관 가치 입증...국제 관광명소 ‘날개’

무등산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인증 의미와 효과

무등산권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립공원으로서의 위상을 뛰어넘는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입증시켰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국가가 무등산권의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확인한 것으로 향후 광주·전남지역의 관광 전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해외 마케팅에 한층 용이해진 셈이다. 특히 브랜드 가치는 높아진 반면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규제나 추가 부담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질공원 인증 대상=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희귀한 자연특성·배어난 경관 등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와 고고학·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비(非)지질명소’를 포함하고 있다. 무등산 하면 반드시 거론되는 정상 3봉과 서석대·입석대를 비롯한 23곳이 지질명소이다. 여기에 8700만년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광석대(너비 7m의 세계

최대 절리면) ▲신선대·역새평전(수평·수직 방향 절리의 풍화 매커니즘 교육장)도 인증을 받았다.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풍화돼 형성된 돌무더기인 덕산너덜과 지공너덜의 지구환경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으며, 해발 800~900m 사이에 형성된 2.5km의 대규모 능선인 백마능선과 해발 700m에 위치한 72m의 3단 천연폭포인 시무지기폭포도 조명을 받았다. 이 밖에 ▲새인봉(무등산의 대표적인 대규모 암석동 지형, 수직·수평절리가 잘 발달한 지형) ▲무등산 광주화강암(중생대 쥐라기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된 광주 기반암·화강암 노두) ▲만연사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20억년 전에 형성된 무등산 일대 가장 오래된 지질 명소) ▲서유리 공룡화석지(1500여개 공룡발자국과 70여개의 공룡 보행렬, 유네스코 자연유산 잠정 목록지) ▲운주사 충상옹회암(천불전탑 및 와불 등 문화재들을 지질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질학습장) 등이 있다. 특히 적벽은 수평연장성이 잘 발달된 백

지질·비지질 명소 총망라

브랜드·부가가치 상승

내년 6월 유네스코 인증 신청

약기 최대규모 퇴적층으로 공룡화석 및 중발광물잔류물 등 다양한 고생대 및 고환경적 가치를 지닌 학술교육장으로 평가받았다. 비지질명소는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시문화재 또는 기념물 등이다. 무등산권에 위치한 증심사, 원효사, 의재미술관, 무진고성, 천제단 춘설헌, 경열사, 가사문화유적권 등 역사·문화 유적과 무등산 당산나무, 충효동 왕버들, 제1수원지, 봉황대 약수터, 광주호수생태원 등 자연·생태물이 다. <브랜드·부가가치 상승 효과=지질공원 인증은 자연환경이 우수함은 물론 지질학적으로 인류가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광 상품화가 용이하다. 단순 관광 프로그램을 넘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화가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무등산수박과 담양 죽제품, 화순 유기농 농산물 등 국가지질공원 내 특산품에 대한 인증마크 부착이 가능해져 브랜드 가치는 물론 부가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원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문화해설사 채용 등 부수적인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무등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와 관련 학술대회 등을 거쳐 2015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방침이다. 무등산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경우 국내에서는 두번째이며, 세계에서는 112번째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완료되면, 이후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새정치 지역위원장 선출 불공정 선거·당비대납 의혹 열락

광주 서울 김하중 후보 불참 선언 서울 은평을 경선 중단 진상조사

경기 덕양을도 대납 잠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위원장 선출 경선에 잡음이 일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불공정을 주장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가 하면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져 경선이 중단되고 있는 것. 광주 서울 지역위원장 경선 후보인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을 하루 앞둔 어제 저녁 6시30분께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사전 협의도 없이 변경된 선거인 명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는 특정 세력에 의해 선거인 명부가 훼손된,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앙당 선관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선 불참을 선언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위반이며 사실상 대리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당 관계자는 “일부 선거인의 휴대 전화와 집 전화번호가 바뀌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후보가 사퇴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 서울 지역위원장은 조영택, 정상용 전 국회의원과 김하중 위원장 간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여기에 서울 은평 을의 지역위원장 선출 경선도 지연호 전 지역위원장의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경선 자체가 중단됐다. 당 관계자는 “경선 지역으로 정한 뒤에도 당비 대납 의혹이 계속 제기돼 정상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중앙당 조직국 및 서울시장의 합동조사 이후, 경선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정치적 음모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중앙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당은 경기 덕양 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